

## 일한 번역에서의 독점(読点)의 번역 분석 - 소설 『こゝろ』와 번역본을 중심으로 -

전은정\*

**Eunjeong Jeon (2023). Translation analysis of commas in Japanese-Korean translation: Focusing on the novel “Kokoro” and translated books.** *The use of commas in Korean and Japanese demonstrates marked differences in frequency and pattern of us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mmas in Korea and Japan, and analyzes the frequency of use for commas and transla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Japanese author Natsume Soseki's work, with the aim to present a translation strategy to accurately convey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Based on its findings, this study hopes to foster a deeper understanding toward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commas and translation patter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nd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structure and meaning conveyance of translated texts in translation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lso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guidelines in the fields of translation research and translation tool development, and thereby contribute to improving translation quality. (Hallym University, Korea).*

**Keywords: Korean-Japanese translation, commas, interpretation, punctuation mark, novel translation**

주제어: 한일번역, 심표, 통번역, 구두점, 소설번역

---

\* 한림대학교, 강사

## 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일한 번역을 통해 한국어 쉼표와 일본어 독점(読点)의 사용 빈도 차이를 조사하고 사용 빈도에 차이를 보일 경우, 사용 빈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수의 번역문을 비교하여 원문의 쉼표를 번역하는 데 번역사들이 어떠한 번역전략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夏目漱石(Natsume Soseki)의 대표작 중 하나인『こゝろ』(Kokoro)와 이를 번역한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해당 작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작가의 저작권 권리 보호가 종료됨으로써 한국에서 다수의 번역사의 번역문이 출간되었고 이러한 번역본을 비교함으로써 번역사에 따른 번역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쉼표의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坂井 晶子(2011)는 1985년 발표된 坪内逍遙(쓰보우치 쇼요)의 『소설신수』에서 비롯된 언문일치 운동으로 문학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서 쉼표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쉼표의 도입은 글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각적 장치로, 일본 문학에 새로운 언어적 도전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 1910년대에 발표된 夏目漱石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해당 작품이 언문일치운동의 영향을 받아 쉼표가 도입된 초기 시기를 대표하는 텍스트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集英社에서 발간한 일본어 원작과 한국에서 발간된 여러 번역본을 세밀히 분석하여 쉼표의 번역 방법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조사하고자 한다:

1. 일본어 원작과 한국어 번역본 간의 쉼표 사용 빈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2. 동일한 원문을 번역한 다수의 번역본 간의 쉼표 번역에 어떠한 전략이 사용되며, 이로 인해 번역본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1) 한국어 쉼표의 역할을 하는 구두점으로 본 논문에서는 쉼표로 표기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선행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쉼표 사용 빈도의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宋正植(2016)에 따르면 한국 국어 교과서와 일본 국어 교과서의 쉼표의 사용 빈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반점(.)이 915회 사용된 반면 일본 국어 교과서에서는 쉼표(,)가 2,741회로 한국보다 3배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쉼표 사용 빈도의 차이는 많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파악하지 못하여 쉼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기도 한다. 번역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이러한 현상은 김한식(2000)의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1학년 1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했을 때 쉼표의 사용 양상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 결과 통번역대학원생의 한일 번역에서 쉼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쉼표를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듯 전문 번역사 교육을 받는 통번역대학원생들도 한국어 쉼표에 비해 일본어 쉼표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국어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신호철(2011)의 한국의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의 올바른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장 부호 정답률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27.5%로 매우 낮았다. 특히, 온점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정답률이 향상하여 80.5%를 보이는 반면, 쉼표는 28.5%라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인다. 정답률 수치는 학생들이 쉼표의 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한데 한국에서의 국어교육이 중고등학교 때 완료되는 교육과정을 봤을 때 한국인 번역사가 고등교육을 거치며 반점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숙지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반점에 대한 인식도 번역사의 반점 사용에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장혜선(2008)에서 번역사의 번역 스타일이 번역물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중 한국인의 쉼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장혜선(2008)에서는 일본어 원문에 대해 스타일이 다른 두 개의 한국어 번역문을 16명의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결

과 전원이 쉽표를 적게 사용한 번역물에 대해 더 좋은 번역이라 평가하였으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유로 ‘읽다가 숨이 찰 만큼 쉽표가 많다’ ‘눈에 거슬린다’ ‘오히려 가독성이 낮아짐’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견을 통해 한국인이 쉽표의 잦은 사용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번역사가 쉽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번역물 수용성 측면에서 독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쉽표 사용을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에서 국어교육을 받은 번역사는 일본어로 번역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쉽표 사용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한식(2000)에서 말한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학생들이 쉽표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쉽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는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쉽표 사용 빈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쉽표에 대한 인식의 차이, 사용 방법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쉽표의 사용에 대해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많은 한일 번역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확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한일 번역에 대해서는 쉽표의 번역 양상과 문제점, 수용성 측면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쉽표 번역 전략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하지 않는다.

## 2.2. 한일 쉽표 규정 비교

허용(2018)은 쉽표가 비문의 요소는 아니지만 원문의 저자가 쉽표를 사용한 의도를 번역문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더 나은 번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급 학습자에게 쉽표의 유무에 따라 의미 전달을 비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서 쉽표가 하는 역할과 쉽표 사용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한일 쉽표의 사용빈도와 번역 전략을 연구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서 쉽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다음은 한국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국립국어원 2017)에 명기된 쉽표 규정과 일본 문부과학성의 쉽표 사용 규정(文部省 1946)이다.<sup>2)</sup>

2) 한국국립국어원 쉽표 규정은 2017년이 가장 최근 규정이며, 일본어는 194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가장 최근 규정으로 볼 수 있다.

## 표 1. 한국어 삽표 사용 규정

1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
2	작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
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
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때 쓴다.
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

## 표 2. 일본어 삽표 사용 규정

1	テンは、第一の原則として文の中止にうつ。
2	終止の形をとつてゐても、その文意が續く場合にはテンをうつ。ただし、他のテンとのつり合ひ、この場合にマルをうつこともある。
3	テンは、第二の原則として、副詞的語句の前後にうつ。その上で、口調の上から不必要のものを消すのである。
4	形容詞的語句が重なる場合にも、前項の原則に準じてテンをうつ。
5	右の場合、第一の形容詞的語句の下だけにうつてよいことがある。
6	語なり、意味なりが付着して、読み誤る恐れがある場合にうつ。
7	テンは読みの間をあらはす。
8	提示した語の下にうつ。
9	ナカテンと同じ役目に用ひるが、特にテンでなくては、かへつて読み誤り易い場合がある。
10	對話または引用文のカギの前にうつ。
11	對話または引用文の後を「と」で受けて、その下にテンをうつのに二つの場合がある。「といつて、」「と、」「と、」などの「と」にはうたない。「と、花子さんは」といふやうに、その「と」の下に主格や、または他の語が来る場合にはうつのである。
12	並列の「と」「も」をともなつて主語が重なる場合にはととしてうつが、必要でない限りは省略する。
13	数字の位取りにうつ。

위의 한일 쉽표 사용 규정을 보면 일본어보다 한국어 쉽표 사용 규정 항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쉽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 보다 한국어 쉽표 사용 규정 항목이 많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으나 그 차이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일 쉽표의 사용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문장에서 단락이 바뀌거나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쉽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쉽표를 가독성에 관련된 문장 부호로 인지하고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한국어와 일본어 쉽표 사용 규정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보인다.

먼저, 접속사 뒤에 쉽표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일본어는 ‘そして、しかし’와 같은 접속 부사 뒤에도 쉽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에도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쉽표를 쓰는 규정이 있지만 세부 설명을 보면 열거되는 어구 중 마지막 어구 앞에 쓰는 접속사를 쉽표와 함께 쓰는 것은 일종의 중복이기 때문에 쉽표를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열거에 있어서도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 열거를 할 경우 ‘ 쉽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쉽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세부사항이 있는 반면, 일본어는 열거할 때 쉽표 사용 규정 9번과 12번과 같이 쉽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 쉽표 사용 규정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또 하나가 인용문이다. 일본어는 인용문 앞이나 인용문을 받는 어구에 쉽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는 인용문에 대한 쉽표 사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에서 인용문을 구분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쉽표를 사용함으로써 텍스트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로 제시된 어구 다음에 쉽표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어는 주제로 제시한 어구 다음에 쉽표를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어는 주제로 제시한 어구 다음에도 쉽표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사용자의 판단에 의한 사용에 대한 항목이다. 한국어 쉽표 규정에는 15개의 항목 이외에 세부 사항을 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 쉽표는 그 속성상 대부분은 반드시 써야 하는 부호는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쓰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쉽표를 쓰는 것이 오히려 글을 이해

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준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하게 조절하여 쓰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최근 한국어에서 쉼표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규정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일본어에도 사용자의 자의에 맡긴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 3, 규정 7, 규정 9와 같이 특정 상황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국어처럼 전체 규정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한국국립국어원의 최신 규정을 근거로 번역전략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인 여섯 개의 번역의 번역사가 당시 쉼표 규정을 참고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본고에서 제시한 한국국립국어원 쉼표의 최신 규정 이전에 출판된 번역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쉼표 규정을 근거로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신 쉼표 규정을 기준으로 일관된 분석 기분을 설정한다. 이는 번역 및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쉼표 번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쉼표 사용은 문장의 의미 전달과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신 쉼표 규정을 기반으로 한 분석은 번역사들이 더 효과적인 번역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언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번역 교육에 교육적 통찰을 제공한다. 최신 쉼표 규정에 기반한 분석은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번역 학습자들이 현대 문체에 맞는 번역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하다.

## 3. 분석

### 3.1. 분석대상 텍스트 및 분석방법

분석 대상 텍스트는 夏目漱石의 『こゝろ』와 이를 번역한 여섯 개의 서로 다른 한국어 번역본이다. 한국어 번역본은 교보문고 판매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의 번역본을 선택하여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량적 분석의 대상 번역본은 잇북에서 출간한 『마음』(김성기 2017)으로, 해당 번역본의 발간 연도가 연구의 목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언어의 특성과 문체는 시대와 문화적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쉽표 사용 빈도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여섯 개의 번역본 중 가장 중간적인 발간 연도의 번역본을 선택함으로써 시대적 특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상 텍스트 파일로 디지털화를 진행한 후 JAVA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텍스트로 읽고 문장<sup>3)</sup> 당 쉽표 수, 전체 문장 수, 문장 별 사용된 쉽표 수, 그리고 문장 당 평균 쉽표 사용 수 등을 카운트하여 분석하였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 중 연구 목적과 관련 있는 문장을 선별하여 여섯 개의 번역본에서 어떠한 번역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정량적 분석의 대상 텍스트를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연구의 초점이 데이터 추출 자체보다는 번역 작업의 이해, 쉽표 사용과 번역 전략의 상호작용의 심층적 파악에 있어, 사례분석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향후 연구 과제로 모든 대상 텍스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된다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번역 전략을 제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2. 한일 쉽표 사용 빈도 비교

텍스트 분석을 위해 가장 먼저 쉽표가 대상 텍스트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전체 쉽표 사용 숫자와 문장 당 사용된 쉽표의 평균 등을 비교해 보았다.

표 3. 한일 쉽표 총 사용 수

한국어	일본어
975개	3,647개

위의 표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의 쉽표 사용 빈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 원문에 사용된 쉽표의 수는 3,647개로, 이는 한국어 번역문에 사용된 975개의 쉽표에 비해 대략 4배 이상 많은 숫자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3) 마침표를 문장 구분자로 활용하여 각 문장을 분리하였다.



와 일본어의 언어적 특성과 문장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어는 문장 내에서 문장 부호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수식을 구분하거나 문장의 중단을 나타내는 데에도 쉼표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한 문장 내에서도 여러 개의 쉼표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어는 수식 구분을 주로 띄어쓰기와 조사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부호로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낮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한국어 번역문보다 높게 나타나며 이는 한일 언어 간 번역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쉼표의 적절한 위치와 개수를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4.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문장 당 쉼표 평균 사용 수**

한국어	일본어
0.2	0.8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서 사용한 문장 당 평균 쉼표 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평균 1개 미만의 쉼표를 사용하였다. 특히,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의 사용 빈도가 평균 1개 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쉼표의 평균 사용 수를 조사하는 것은 문장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쉼표의 사용은 문장의 구조, 의미 전달, 작가의 스타일, 작품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쉼표의 평균 사용 수만을 고려하는 것은 문맥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문장이 아주 길거나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쉼표 사용이 더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중단시키거나 강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쉼표가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간결한 문장이나 순조로운 흐름을 갖는 문장에서는 쉼표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특성과 작가의 스타일, 시대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夏目漱石의 『こゝろ』는 1914년에 쓰였다는 점과 문학 작

품임을 감안할 때 작가의 스타일과 작품의 특성이 쉼표의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의 구조와 스타일은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쉼표의 사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번역 작업 시 원문의 작품 특성과 작가의 스타일을 고려하여 문장 부호 사용을 조절하는 것이 번역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5.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문장 당 쉼표 사용 양상**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2,307	1,472	586	196	65	20	3	3	2

다음은 원문에서 사용된 쉼표를 문장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다양한 쉼표의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약 50%에 가까운 2,307개의 문장이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들이 쉼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해당 문장의 한국어 번역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다수의 문장에서는 0개에서 2개의 쉼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적은 수이기도 하나 한 문장에서 7~8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문장도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구조인 만큼 해당 문장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분석한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장 당 쉼표 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사이에 문장 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표 6. 원문과 번역문의 전체 문장 수**

한국어	일본어
4,754	5,076

일본어 원문 텍스트의 총 문장 수는 4,754개였는데 이를 번역한 한국어 번역문의 총 문장 수는 5,076개로 원문에 비해 약 300개가 넘는 문장이 새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번역 과정에서 문장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문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일본어의 쉼표는 문장 내에서 구분선 역할을 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구분을 위해 문장을 분할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 중 문장을 더 작게 나누는 방법은 문장 구조나 표현을 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번역 전략 중 하나일 수 있다.

원문과 번역문의 문장 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번역 연구 및 번역 가이드라인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3.3. 일본어 쉼표 번역 사례 분석

이전 절에서는 단일 원문과 단일 번역문을 대상으로 쉼표의 사용빈도 및 쉼표의 번역을 하면서 문장 수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본어 원작과 夏目漱石의 『こゝろ』을 번역한 『마음』(이지선 2012), 『마음』(송태욱 2016), 『마음』(박유하 2016), 『마음』(김성기 2017), 『마음』(오유리 2019), 『마음』(양윤옥 2022) 총 여섯 개의 번역문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해당 소설은 현재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되어 여러 번역사에 의해 번역되어 한국에도 다양한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섯 개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각 번역본이 어떠한 규칙과 번역 전략을 사용하여 원문의 쉼표를 번역하였는지 자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원문 텍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8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한 문장 당 3~4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문장들이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되었지를 살펴본다. 또한, 일본어 원문보다 한국어 번역본에서 더 많은 쉼표가 사용된 문장에도 주목하여 번역문과 원문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도 탐구한다.

#### 3.3.1. 일본어 쉼표의 한국어 번역 사례 분석

먼저, 원문 텍스트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8개의 쉼표를 사용한 문장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문장은 149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문장으로 짧은 길이는 아니다. 또한, 하나의 문장에 8개의 쉼표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흔하지는 않다. 이러한 문장을 분석함으로써 쉼표 사용이 적은 한국어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 사례 1

[ST]

学問をやり始めた時には、誰しも偉大な抱負をもって、新しい旅に上るのが常ですが、一年と立ち二年と過ぎ、もう卒業も間近になると、急に自分の足の運びの鈍いのに気が付いて、過半はそこで失望するのが当たり前になっていますから、Kの場合も同じなのですが、彼の焦慮方はまた普通に比べると遙かに甚はだしかったです。(p. 487)

[TT1]

누구라도 대학에 첫발을 대니딜 때는 위대한 포부를 가슴에 안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고 졸업이 가까워지면 자신의 자취를 뒤돌아보고 실망하곤 하지. 그러나 K가 불안해하는 정도는 정상이 아니었네. (p. 205)

[TT2]

학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지대한 포부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새 졸업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자신의 발걸음이 무더지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보통이거든. 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것에 비해 훨씬 심했지. (p. 197)

[TT3]

학문을 시작했을 때는 누구나 위대한 포부를 갖고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새 졸업도 가까워지면 불현듯 자신의 발걸음이 지지부진했다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실망하는 것이 보통인지라 K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가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통 이상으로 훨씬 심했습니다. (p. 253-254)

[TT4]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는 누구나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오르기 마련이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졸업할 날이 가까워지면, 문득 자신의 발걸음이 둔해진 것을 깨닫고 실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네. K도 그런 경우이긴 하지만, 그의 초조함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난히 심했지. (p. 225)

[TT5]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누구나 위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정에 발을 디디기 마련이지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가서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별다른 진척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K의 경우 그 절망감은 다른 이들이 비해 훨씬 컸네. (p. 238)

[TT6]

처음 학문을 시작할 때는 누구나 위대한 포부를 안고 새로운 여행길에 오르지

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되면 문득 자신의 걸음이 지지부진한 것을 깨닫고 대부분 실망하는 게 당연하니까 딱히 K만 뒤쳐진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의 초조해하는 모습은 보통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p. 220-221)

가장 눈에 띄는 차이 중 하나는 번역 TT1과 TT2, TT4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원문을 각각 3개와 2개의 문장으로 분리했다는 점이다. 이 전략은 긴 문장을 적절히 나누어 가독성을 높이고 초조해하는 K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리고 번역 TT3, TT5, TT6은 원문과 동일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유지하면서 번역했으며 이를 통해 원문의 뉘앙스를 보존하며 문맥을 고려하여 감정과 느낌을 충실하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번역에서 독자에게 원문과 유사한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문장을 마침표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K의 감정을 설명하기 전에 쉼표를 사용함으로써 원문과 동일하게 K의 감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다섯 개의 번역 중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번역은 TT1뿐인데,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번역 전략을 선택하면서 총 8개였던 쉼표를 한국어에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TT1에서 아쉬운 점은 원문의 ‘一年と立ち二年と過ぎ’를 ‘한 해 두 해’로 숫자 사이에 어휘를 생략하면서 숫자만 열거했음에도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어 쉼표 규정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에 따라 쉼표를 사용했다면 ‘한 해, 두 해’와 같이 쉼표를 삽입하여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쉼표를 활용하면 독자가 읽을 때 열거된 항목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이는 번역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쉼표를 사용하지 않아 오역으로 이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국국어국립원 쉼표 규정에 따라 쉼표를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쉼표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쉼표 3개를 사용한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쉼표 1개에서 3개를 사용한 문장이 일본어 원문 중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쉼표 3개를 사용한 문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장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며 본 연구의 주제가 일본어 쉼표를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번역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례 2

[ST]

先生はそれを落すために、後ろ向きになって、浴衣を二、三度振るつた。(p. 14)

[TT1]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서서 옷을 두세 번 흔들었다.(p. 11)

[TT2]

선생님은 모래를 떨어내기 위해 등을 돌리고 유카타를 두세 번 떨었다.(p. 22)

[TT3]

선생님은 그 모래를 털기 위해 뒤로 돌아서서 옷을 두세 번 털었다.(p. 16)

[TT4]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털었다.(p. 14)

[TT5]

선생님은 모래를 털어내려고 뒤로 돌아 유카타를 두세 번 흔들었다.(p. 14)

[TT6]

선생님은 그걸 털어 내려고 뒤로 돌아서서 유카타를 두어 번 흔들었다.(p. 15)

일본어 원문에서는 3개의 십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다섯 개 모두 하나의 십표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원문의 숫자를 한글로 표기하는 번역 전략을 선택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어 원문에 ‘二、三’을 ‘두세 번’ 또는 ‘두어 번’으로 번역하면 두 수 사이에 십표를 넣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숫자 표현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번역사는 숫자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십표를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택은 번역사의 언어적 스타일, 번역의 흐름, 문장 구조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번역문에서 숫자를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 십표 사용 여부도 변할 수 있다.

## 사례 3

[ST]

私が丸い墓石だの細長い御影の碑を指して、しきりにかれこれいいたがるのを、始めのうちは黙って聞いていたが、しまいこ「あなたは死という事実をまだ真面目に考えた事がありませんね」といった。(p. 29)

[TT1]

처음부터 나는 둥그런 묘석이나 화강암으로 된 길쭉한 묘비를 가리키며 자꾸만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것을 참다가 물어본 것인데, 허무하게도 선생님께서 “학생은 죽음에 대해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라는 말을 들었다. (p. 17-18)

[TT2]

내가 둥근 묘석이나 길쭉한 화강암 비석을 가르키며 자꾸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자네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나 보군”하고 말했다. (p. 27-28)

[TT3]

선생님은 내가 둥글거나 길쭉한 화강암 비석 같은 것을 가리키며 자꾸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나중엔 “학생은 죽음에 대해서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군요.”하고 말했다. (p. 24)

[TT4]

내가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은 둥근 석물이라느니, 저것은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이라느니, 하고 신나게 떠들어대자,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던 선생님이 급기야 한마디 던졌다. “자네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 (p. 21)

[TT5]

내가 이것은 둥근 모양이라는 둥, 저것은 가늘고 긴 모양의 화강석이라는 등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떠드는 것을 처음에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침내 “덥은 죽음에 대해 아직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군요”하고 한마디 하셨다. (p. 21)

[TT6]

내가 둥근 묘석이며 길쭉한 화강암 비석들을 가르키며 실 새 없이 이래저래 늘어놓는 말을 처음에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자네는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이라고 말했다. (p. 22)

위의 원문에서 한 문장에서 심표 3개가 사용되었으며 행동을 강조하여 문장의 후반와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3개의 심표 중 마지막 ‘開いていたが、’는 행동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다섯 개의 번역문 중 유일하게 TT4가 하나의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서 해당 심표를 처리하였다. 또한, TT1과 TT3은 해당 심표를 한국어 심표로 동일하게 번역함으로써 원문과 동일하게 행동의 변화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TT4과 TT5에서는 원문에 심표의 역할을 하는 심표가 없음에도 한국어 번역에서 심표를 사용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일본어 조사 ‘の’이다. 일본어 조사 ‘の’는 주로 한국어로 ‘~의’, ‘~에’와 같은 의미

로 사용되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띄어쓰기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하는 역할로 사용되어 한국어에서 쉼표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의 의도와 문맥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독자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역사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 3.3.2. 한국어 번역문을 통해 본 쉼표 번역 전략

다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번역문을 선택한 후, 역으로 일본어 원문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한국어 번역문에서 역으로 일본어 원문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쉼표의 사용과 번역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쉼표보다는 조사나 띄어쓰기 등을 통해 문장 구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문에서 쉼표를 많이 사용한 경우, 이러한 쉼표가 어떠한 문맥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원문과 비교 분석하면 한국어 쉼표의 사용 규칙과 번역 전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문과 원문 간의 쉼표 사용 비교를 통해 번역의 정확성과 의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번역 작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번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사례 4

[ST]

私は死に瀕している父の手前、その父に幾分でも安心させてやりたいと祈りつつある母の手前、働かなければ人間でないという兄の手前、その他た妹の夫だの伯父だの叔母だのの手前、私のちっとも頓着していない事に、神経を悩ま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p. 324)

[TT1]

최후의 순간에 당도한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반가운 소식이었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형 앞에서, 그리고 매제와 숙부과 숙모 앞에서 나는 시달리고 있었다. 정작 당사자인 내가 취직자리에 대단한 집념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p. 142-143)

---

4) 번역문은 정량적 분석을 한 『마음』(김성기 2017)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TT2]

나는 죽을 지경에 이른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를 얼마간이라도 안심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형 앞에서, 그 밖에 매제며 큰아버지며 큰어머니 앞에서, 내가 전혀 개의치 않는 일에 신경을 써야 했다. (p. 139)

[TT3]

죽음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형을 봐서라도, 그 밖에 여동생이며 큰아버지며 큰어머니며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체면 때문이라도, 나 자신이 전혀 무관심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p. 171-172)

[TT4]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를 앞에 두고,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형을 앞에 두고, 그 외에 매제나 큰아버지나 고모를 앞에 두고, 나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p. 156)

[TT5]

나는 죽음을 눈앞에 둔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드리고 싶어하는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형 앞에서, 그 외에도 큰아버지나 매제 앞에서 조금도 집착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 태연할 수만은 없었다. (p. 161)

[TT6]

죽음이 임박한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를 얼마간이라도 안심시켜 드리자는 어머니 앞에서, 일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형 앞에서, 그 밖에 매제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앞에서, 나는 스스로는 관심도 없는 그 일로 골머리를 썩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p. 150-151)

TT1과 TT5는 두 개의 썬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4개의 썬표를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 한 문장에 4개의 썬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각각의 번역에서는 원문의 썬표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번역사의 판단과 한국어 썬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었다. 이러한 판단과 규정은 번역의 목적, 문장의 흐름,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한국어 썬표 규정에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쓴다’는 항목이 있으며 위의 원문과 다섯 개의 번역문에서 모두 열거의 내용에 맞게 썬표를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TT1, TT5에서 열거 중 몇 개는 ‘~와’, ‘그리고’를 쉼표 대신 사용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その他妹の夫だの伯父だの叔母だのの手前’ 뒤에 오는 쉼표를 생략하였다. 이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어 쉼표 규정에 ‘쉼표 없이도 그러한 사정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쓰지 않아도 된다’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과 의도를 고려하여 번역사의 판단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부분이라 보인다.

그러나 네 개의 번역본을 살펴보면 한국어 번역에서 열거 시 쉼표를 되도록 생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쉼표를 쓴다’는 한국어 쉼표 사용 규칙과도 관련이 있지만, 쉼표 사용 규정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와 쉼표 사용 규정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와 같은 다양한 규칙이 쉼표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쉼표 사용은 단일한 규정만 따르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와 규칙이 상호작용하며 쉼표의 사용을 조절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시사한다.

그 외에 TT3에서는 원문의 쉼표를 그대로 쉼표로 번역하되, 문장을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 ‘봐서라도’, ‘위해서라도’ 등 쉼표 앞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는 등의 번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반복되는 표현을 최소화하여 글의 단조로움을 피하는 동시에 문장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원문의 의미와 의도를 보조하면서도 한국어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언어적인 차이와 더불어 문장의 목적과 독자의 이해를 고려하여 쉼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번역사의 판단이 중요하며, 번역사는 항상 최종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판단이 번역 작업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 4. 논의

본 논문에서는 쉼표의 사용 및 번역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사례 1과 사례 3에서는 원문의 ‘が,’를 문장으로 나누는 번역 전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의 ‘~인데’, ‘~이지만’과 유사한 의미로 문장을 연결하여 번역하

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몇 번역문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분리함으로써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앞서 정량적 분석에서 원문에 비해 번역문에서 약 300개의 문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전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전략과 쉼표 사용 패턴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문장 구조 및 의미 전달 방식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번역 작업에서의 선택적 쉼표 사용이 번역 품질과 텍스트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쉼표 사용이 적은 한국어에서도 열거를 하거나 문장의 의미나 등장인물의 행동의 전환 등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쉼표는 대부분 생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일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사 ‘の’에 관련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조사 ‘の’는 ‘~의’ 또는 ‘~인’이라는 의미로 가르치며,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조사 ‘の’가 한국어 번역에서 쉼표로 번역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으나 쉼표와 관련된 번역 패턴을 연구할 때 조사 ‘の’를 고려하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만큼 이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쉼표의 사용빈도와 번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일본어 원문에서 쉼표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이 작품이 1900년대 초반에 쓰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의 문학 작품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문체와 문장 구조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상 텍스트가 문학 작품인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문학 작품에서는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문장 구조나 구두

점의 사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쉼표 번역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일본어 문학 작품 및 비문학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작품 간에 어떠한 구조적 차이가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 쉼표 사용이 번역 품질과 텍스트의 의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번역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본어 원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작품의 선택과 쉼표 도입 초기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 작품이 쉼표 사용이 지금의 어문 규정과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쉼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쉼표의 시대적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발표된 일본어 문학 작품 및 비문학 작품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장르와 시대의 텍스트를 분석한다면 쉼표의 사용에 대한 특징뿐 아니라 장르별, 시대별 변화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한식. (2000). 「한·일 번역에 있어서의 句讀點의 문제」. 『통번역학연구』 4: 47-68.
- 宋正植. (2016).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부호 사용양상 고찰」. 『日本語教育研究』 34: 95-114.
- 신호철. (2011).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 사용 양상 조사」. 『한민족문화연구』 37: 199-229.
- 장혜선. (2008). 「번역사의 번역 스타일이 번역물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일한 문학 번역을 중심으로 -」. 『통번역학연구』 12(1): 109-134.
- 허용. (2016). 「한국어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장의 특징 연구: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문화연구』 24(5): 629-649.
- 坂井 晶子. (2011). 「文学と記号表現 : 近代文体成立と句読法との関連性について」. 『表現文化』 6: 23-40.

### [인터넷 자료]

- 국어국립원. (2017). 한국어 맞춤법. [https://kornorms.korean.go.kr/m/m\\_regltn.do?regltn\\_code=0001#a740\(2023.10.8. 검색\)](https://kornorms.korean.go.kr/m/m_regltn.do?regltn_code=0001#a740(2023.10.8. 검색)).
- 文部省. (1946). <きり符号の使ひ方: 句読法案> [https://dl.ndl.go.jp/info:ndljp/pid/1126388/1\(2023.10.8. 검색\)](https://dl.ndl.go.jp/info:ndljp/pid/1126388/1(2023.10.8. 검색)).

### [분석 대상]

- 夏目漱石. (1991). 『こゝろ』. 東京: 集英社. (ST)
- 이지선. (2012). 『마음』. 서울: 책만드는집. (TT1)
- 송태욱. (2016). 『마음』. 서울: 현암사. (TT2)
- 박유하. (2016). 『마음』.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TT3)
- 김성기. (2017). 『마음』. 파주: 잇북. (TT4)
- 오유리. (2019). 『마음』. 서울: 문예. (TT5)
- 양윤옥. (2022). 『마음』. 파주: 열린책들. (TT6)

This paper was received on 5 November 2023; revised on 30 November 2023; and accepted on 20 December 2023.

---

### *Author's email address*

ejsh20@gmail.com

### *About the author*

Eunjeong Jeon is a lecturer at Hallym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